논어 5편 공야장 12장 · 원문·풀이

子貢曰：「我不欲人之加諸我也，吾亦欲無加諸人。」子曰：「賜也，非爾所及也！」

독음 · 자공왈 아불욕인지가저아야 오역욕무가저인 자왈 사야 비이소급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자공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. 공자는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짚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貢 바칠 공 공 / 曰 가로 왈 / 我 자기 아 아

不 아닐 불 / 欲 욕심낼 욕 욕 / 人 사람 인 / 之 갈 지

加 더할 가 가 / 諸 모든 제 제 / 也 어조사 야 / 吾 자기 오 오

亦 또 역 / 無 없을 무 무 / 賜 줄 사 사 / 非 아닐 비 비

爾 너 이 이 / 所 바 소 소 / 及 미칠 급 급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